

[ 정보·과학 ]

이승헌의 뇌과학 칼럼



한국뇌과학연구원 원장

주목받는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픽

<고등감각인지능력>

과학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모든 학문영역을 '뇌'와 융합해 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과학계의 흐름이기도 하다.

또한 뇌에 대한 연구는 그 효과가 크다. 뇌에 대한 이해는 알츠하이머병 등 각종 뇌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낳은 차세대 컴퓨터나 로봇을 개발하고, 통신과 정보네트워크에 응용하는 등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

이 같은 효과를 인식한 과학자들은 뇌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나서서, 유네스코와 전 세계 100여 뇌 연구기관과 선진 57개국 정부가 공동적으로 매년 3월 셋째 주를 '세계 뇌 주간(World Brain Awareness Week)'으로 정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브레인 테크 21'이라는 뇌 연구 개발 사업이 수년 전부터 시행중이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3월 셋째 주에 뇌 주간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HSP 뇌호흡 세미나' 열렸으며, 지난 1일 광주대에서도 세계적인 뇌과학자 신형섭 박사가 뇌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

다. 뇌야말로 21세기 국력을 좌우할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뇌'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한걸음 앞서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지난 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려 국제적인 주목을 받

뇌는 21C 국력 좌우할 키워드 美·日 등 '뇌 프로젝트' 추진 내달 서울대회...새 인재상 정립

고 있는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픽'이 그것이다. 이 대회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천문 등 지식평가에 기반을 둔 기존의 국제과학올림픽과는 달리, 21세기 뇌의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한 최초의 두뇌활용 국제 올림픽이다.

올해도 제2회 대회를 위한 예선전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일 광주 효동초등학교에

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광주·전남 예선전이 열려 뇌를 활용한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학생들은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며 함께한 부모들을 놀라게 했다.

5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본선대회에는 또다시 국내외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픽이 대회장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내한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 인류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자 희망이라는 '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머지않아 뇌를 기반으로 한 뇌 교육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것기에 통합적인 뇌 활용과 두뇌개발에 초점을 맞춘 올림픽아드를 통해 뇌 개발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회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픽'이 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류 모두가 원하는 건강, 행복, 평화로운 미래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동통신 3사 보조금 약관

Table showing mobile phone subsidy terms for SK Telecom, LG Telecom, and KTF. It includes columns for usage volume (e.g., ~3 months, 3-5 months) and subsidy amount (e.g., 3.27 million KRW).

휴대전화 보조금 인상 경쟁 "서두르면 손해"

언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KT, LGT 보조금 전격 인상 LG텔레콤은 14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4만원까지 올려 최고 25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 시행에 들어갔다.

KT도 6개월 사용 금액이 24만~30만원(월 평균 4만~5만원) 미만대와 54만원(월 9만원) 이상인 보조금 등급을 신설, 가입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저 9만원에서 최고 22만원까지 지급기로 했다.

이미 혜택을 받은 가입자들만 손해=두 업체 모두가 보조금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LGT의 경우 4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들은 4만8천272명, KTF도 5만7천20명인 번호 이동을 하거나 신규 가입했다.

SK텔레콤이 타 업체들과 함께 보조금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약관을 변경하게 되면 결국 발빠르게 보조금 혜택을 받은 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광주 와이브로 서비스 내년까지 기다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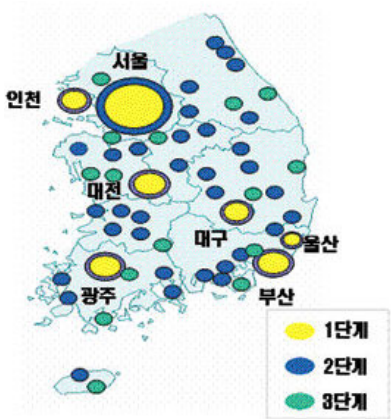
KT, 체험단 뺀 서울만 시범서비스...지역민들 불만

초고속 인터넷을 휴대 전화처럼 이동 중에 쓸 방법은 없을까?

차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휴대 인터넷(와이브로·Wibro) 서비스가 지난 4일부터 일반인 체험단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와이브로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로, '휴대인터넷'이라고 불린다.

KT는 이와관련, "단말기 지급 장소가 한정된 탓에 발생한 문제로 4월말까지 지급을 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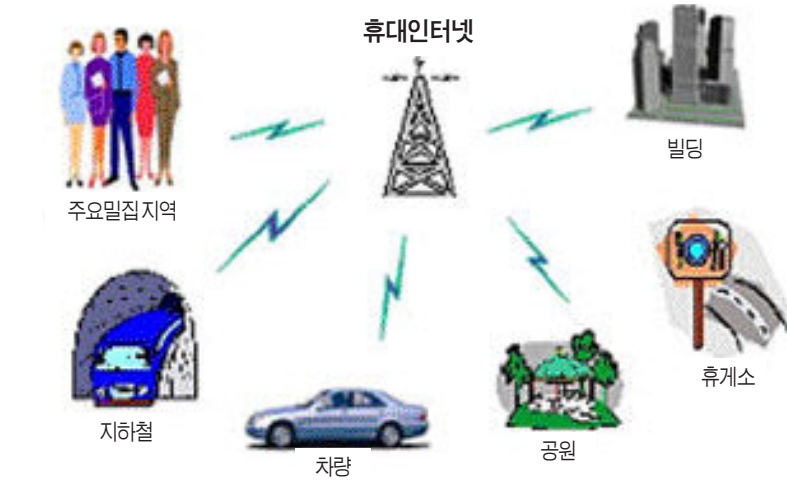
휴대인터넷망 확장 계획



서울지역만 시범서비스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왜 다른 지역에서는 시범 서비스조차 하지 않느냐"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터지는 것도 당연하다.

또 제공 콘텐츠도 미디어서비스·커뮤니케이션 서비스·데이터 서비스 등 일부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 KT는 "상용화된 것이 아닌 단순한

휴대인터넷 개요



시범서비스라는 것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다.

◇움직이는 인터넷 세상, 광주·전남 지역은 기다려야=광주지역은 내년 3분기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KT는 3단계로 나눠 ▲2006년 서울·수도권(인천 및 경기도 13개시) 및 4대 광역시(광주·부산·대전·대구)에 서비스를 제공

하며, ▲2007년 19개 중소도시 ▲2008년 46개 지방소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늦춰졌다.

◇와이브로, 무선랜과 어떻게 다르나=무선 인터넷 접속이라는 점에서 무선랜과 비슷하다. 하지만 무선랜(Wi-Fi)은 중계기가 설치된 지역을 벗어나면 쓸 수 없다. 중계기인 AP(Access Poi-

nt)의 전파가 미치는 범위(50~150m) 이내에서만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탓이다.

국내 최대 규모 무선랜 서비스인 KT '네스넷'의 경우 광주·전남 가입자 3만 2천명(전국 50여만명)을 위해 광주 620개소, 전남 480개소에 AP가 설치됐다.

'핸드 오버'도 불가능하다. 핸드 오버란 무선 통신 사용자가 하나의 기지국(또는 중계기)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넘어가더라도 통신이 끊기지 않는 것으로, 자동차에서 통화 끊김 현상 없이 휴대전화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같은 핸드 오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면 와이브로는 무선 랜과 달리 접속반경이 1km나 돼 넓은 지역에서 쓸 수 있다. 또 2.3GHz 주파수를 활용, 시속 120km로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도 끊김없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고 전송속도는 초당 다운로드 18.4Mbps, 업로드(서버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는 6.1Mbps로, 무선 인터넷에 버금간다.

KT는 무선 랜에 대한 설비 투자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가입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와이브로와 무선 랜을 결합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Used Car Buy/Sell All Models). It features a grid of car models with prices and a large banner at the bottom with contact information: 010-8427-9997 (유)홍길병 자동차 매매상사.